

TRADE FOCUS

2025년 14호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동향분석실 김나을 연구원
도원빈 수석연구원
김어진 연구조원

TRADE FOCUS 2025년 14호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발행인	윤진식
편집인	장상식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행일	2025년 6월 20일
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
ISSN	2093-3118

CONTENTS

01	연구배경	06
02	한·일 경제교류의 역사와 현황	07
	1. 교역	07
	2. 기업 현황	11
	3. 투자	12
03	기업이 바라보는 한·일 기업협력	13
	1. 한·일 관계의 기업 교류 영향	14
	2. 파트너社 협력 만족도 및 협력 확대 의향	15
	3. 한·일 기업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정책	17
04	한·일 기업협력 유망 분야 및 발전 전략	19
	1. 모빌리티	19
	2. 차세대반도체	21
	3. 바이오	23
	4. 핵심광물 및 에너지	25
05	결론 및 시사점	27
	참고문헌	29

본 자료는 협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향분석실 김나울 연구원



02-6000-5579



nayul.kim@kita.or.kr

요약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며 동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한·일 간 무역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 달러로 352배 확대되었다. 교역 구조도 과거 한국이 일본에 원자재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입하는 수직적 분업에서, 현재는 IT 및 중화학공업 제품을 쌍방으로 교역하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투자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일본 해외직접투자는 2018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5년 연속 1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2024년 1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9.5% 증가하여 크게 반등하였다.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양국 기업은 상호 교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향후 협력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66.2%, 일본 기업의 75.5%가 상대국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의 94.5%, 일본 기업의 95.9%가 향후 상대국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양국 기업이 장기적 신뢰 기반의 안정적인 거래와 상호 시장 접근의 전략적 이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지원 요구사항으로는 양국 기업 모두 '안정적인 한·일 소부장 공급망 협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외에도 한국 기업은 '온·오프라인 셀러-바이어 매칭 기회 확대'를, 일본 기업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본 보고서는 지난 60년 동안 한·일 교역 구조가 중간재 중심으로 재편되어 온 만큼, 미래 첨단산업에서도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핵심광물 및 에너지 4개 분야를 한·일 기업협력의 유망 분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술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협력을 제안한다. 한국의 교통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일본의 대형 교통사업 운영 경험을 결합하여 차세대 MaaS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양국의 교통 데이터와 결제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화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차세대반도체 분야에서는 한·일 R&D 협력 플랫폼 운영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 제고와 중소기업 중심의 설계-제조 연계 협업 공급망 구축을 제시한다. 양국 모두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에서 미국·대만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대만 TSRI 사례를 벤치마킹한 개방형 R&D 협력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임상-상용화 연계 시스템 구축과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양국 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제안한다. 일본의 우수한 기초연구 역량과 한국의 응용기술 및 상업화 역량을 결합하여 한·일 공동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시 임상 데이터와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광물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일 에너지 통합 솔루션 구축과 제3국 공동 생산 협력을 통한 안정적 자원 공급망 확보를 제시한다. 양국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고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운영 경험과 한국의 에너지 활용 기술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

한·일 기업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선호하는 양국 기업이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신뢰를 위한 거래 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및 기업 매칭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기업협력의 지속성을 위해 양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경제외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망 분야별로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양국 교통 시스템의 특징과 장점 공유를 위한 기업 간 교류 기회 마련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해외인증 국내 승인 시스템 도입과 임상시험 데이터 상호인정 제도 검토가, 차세대반도체 분야에서는 한·일 공동 연구 수행비 장기 지원과 설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는 자원 보유국과의 대화 채널 정례화를 통한 제3국 진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I 연구배경

■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로, 1965년 이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동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음

-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며, 이후 양국은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신뢰의 기반을 다져옴
- 1980~90년대 양국 정상 간 공식 방문과 회담이 활발해지면서 국교 관계가 본격화되고, 경제·사회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됨
- 2000년대 이후에도 한·일 양국은 경제, 산업, 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음

■ 한·일 양국은 현재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동 대응을 위한 미래 산업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양국의 기업 협력은 단순한 무역 확대를 넘어, 혁신 인재 양성, 산업생태계 구축, 신시장 개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기업 교류의 역사와 현황을 되짚어 보고, 향후 양국의 기업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설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양국 기업협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을 파악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과 일본 기업의 협력이 유망한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함

II

한·일 경제교류의 역사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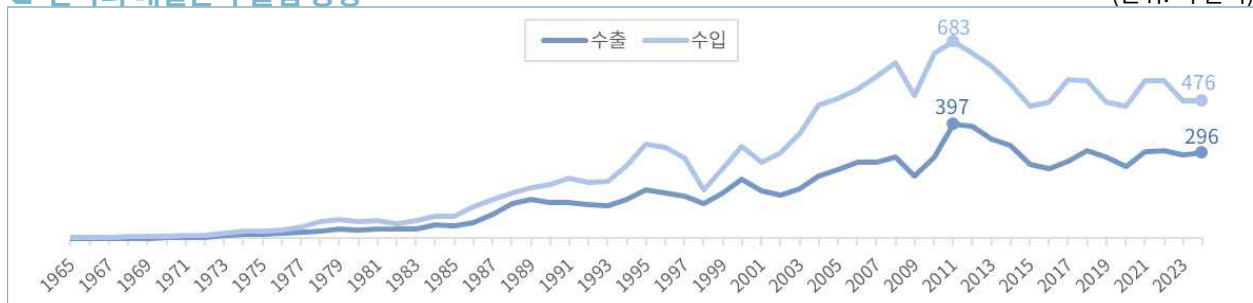
01 교역

■ 한·일간 무역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 달러로 352배 성장

- 한국의 대일본 교역규모는 2011년 1,08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였고, 최근 교역규모는 700~8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965년 대비 2024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660배, 수입은 270배 가량 증가
 -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도 최근 들어 균형점을 찾아가는 추세로, 2010년 361억 달러였던 대일본 무역적자는 2024년 기준 180억 달러로 축소되었음

▶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한국의 대일본 교역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국교 정상화 직후 40%까지 상승했던 한국의 대일본 교역 비중은 1970년대 이후 감소
 - * 대일본 교역 비중(%): ('73)39.8 → ('80)22.4 → ('90)23.1 → ('00)15.7 → ('10)10.4 → ('20)7.3
 - 대일본 교역 비중 하락은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성장한 데 기인
 - * 1965년 대비 2024년 한국의 대일본 교역액은 352배 증가한 반면, 대세계 교역액은 2,060배 증가
 - 2024년 한국의 대세계 수출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3%, 수입 비중은 7.5%, 교역 비중은 5.9%로 과거에 비해 낮아진 양상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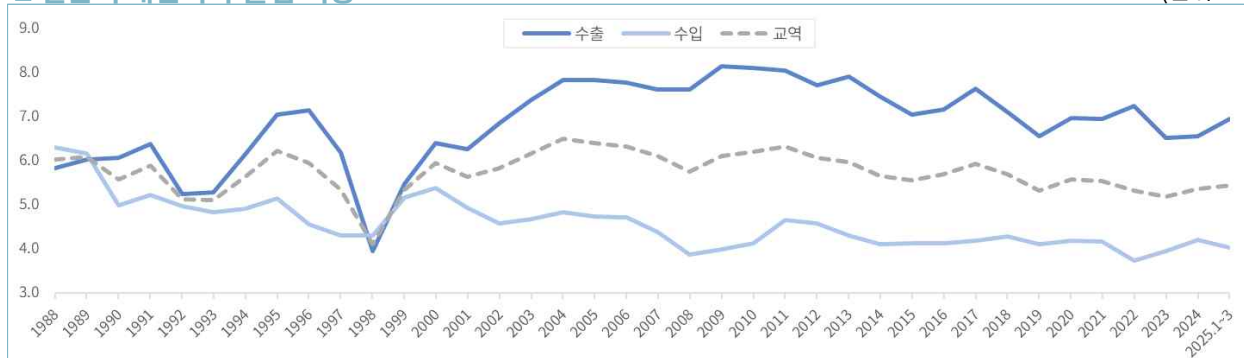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일본의 대한국 교역 비중은 6% 내외 수준에서 등락

- 일본의 대한국 교역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대한국 수출 비중이 7% 내외, 수입 비중이 5% 내외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수요 시장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함

일본의 대한국 수출입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상위 교역국으로서 활발한 무역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한국의 대일본 교역 순위는 2~3위권 수준이었다가 최근 들어 4위로 소폭 하락하였고, 일본의 대한국 교역 순위는 3~4위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
- 2024년 한국 기준 일본 교역비중은 5.9%, 일본 기준 한국 교역비중은 5.4%로 양국의 교역에서 서로의 위상은 비슷한 수준임

▶ 한국과 일본의 상호 교역 순위

(단위: 순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한·일 상위 교역국('24)

(단위: %)

순위	한국		일본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1	중국	20.7	중국	20.1
2	미국	15.2	미국	15.5
3	베트남	6.6	한국	5.4
4	일본	5.9	대만	5.2
5	대만	4.9	호주	4.8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가공단계별로 보면 한국의 대일본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은 하락하고, 중간재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198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은 소비재(49.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간재 비중은 31.6%에 불과하였음

- 이후 중간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4년 기준 전체 대일본 수출의 77.5%가 중간재였고, 소비재의 비중은 12.1%까지 하락하였음

* 대일본 중간재 수출 비중(%): ('88)31.6 → ('00)64.1 → ('12)71.9 → ('24)77.5

* 대일본 소비재 수출 비중(%): ('88)49.5 → ('00)22.0 → ('12)10.9 → ('24)12.1

- 대일본 수입은 중간재와 자본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1990년대 후반 일시적으로 중간재 비중이 증가하고 자본재 비중이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입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대일본 중간재 수입 비중(%): ('88)61.2 → ('00)70.1 → ('12)72.8 → ('24)68.0

* 대일본 자본재 수입 비중(%): ('88)23.5 → ('00)25.3 → ('12)18.4 → ('24)23.2

▶ 대일본 가공단계별 수출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대일본 가공단계별 수입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과거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은 경공업 제품과 1차 산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IT제품 및 중화학공업 제품이 대일본 수출을 주도

- **(수출)** 1988~2000년 기간 한국의 대일본 최대 수출품목은 의류(13.5%), 어류(2.9%) 등이 차지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석유제품, 철강판, 반도체가 3대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
 - **(수입)** 대일본 수입은 반도체가 굳건한 1위 품목을 유지한 가운데, 201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관련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
 -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는 주로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이며, 일본으로의 수출은 메모리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함
- * 대일본 반도체 세부품목별 수출비중('24년 기준, %): 메모리 47.9, 시스템 25.4, 광개별소자 26.7
대일본 반도체 세부품목별 수입비중('24년 기준, %): 메모리 0.6, 시스템 70.9, 광개별소자 28.5
-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수출 품목이 유사해지면서 양국 간 산업 내 무역도 활발해졌음
 - 한국-일본 간 Grubel-Lloyd 지수는 1988년 0.25에서 2024년 0.42로 증가
- * Grubel-Lloyd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함. 자세한 계산식은 각주¹⁾ 참고

▶ 한국의 기간별 대일본 교역 상위품목

(단위: 비중 %)

순위	'88~'00	'01~'10	'11~'20	'21~'24
수출 상위품목				
1	의류 (13.5)	석유제품 (14.6)	석유제품 (17.4)	석유제품 (18.4)
2	반도체 (10.2)	반도체 (14.1)	철강판 (6.8)	철강판 (8.2)
3	철강판 (7.8)	철강판 (5.6)	반도체 (5.7)	반도체 (4.4)
4	석유제품 (6.7)	컴퓨터 (4.6)	무선통신기기 (4.7)	금은빛백금 (3.9)
5	어류 (2.9)	디스플레이 (4.0)	금은빛백금 (3.4)	정밀화학원료 (3.1)
수입 상위품목				
1	반도체 (10.1)	반도체 (10.4)	반도체 (8.3)	반도체 (14.4)
2	철강판 (4.8)	철강판 (7.6)	반도체 장비 (6.4)	반도체 장비 (10.6)
3	기타기계류 (4.2)	플라스틱 제품 (3.8)	철강판 (5.7)	철강판 (5.1)
4	섬유및화학기계 (3.2)	반도체 장비 (3.6)	플라스틱 제품 (5.1)	플라스틱 제품 (4.1)
5	계측제어분석기 (3.2)	디스플레이 장비 (2.9)	기초유분 (3.3)	합금철·선철·고철 (2.6)

주: MTI 3단위, 기간평균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1) $GL_i = \frac{(X_i + M_i) - |X_i - M_i|}{X_i + M_i} = 1 - \frac{|X_i - M_i|}{X_i + M_i}$; $0 \leq GL_i \leq 1$, Grubel, Lloyd (1975).

02 기업 현황

■ 한국의 대일본 수출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만 2,700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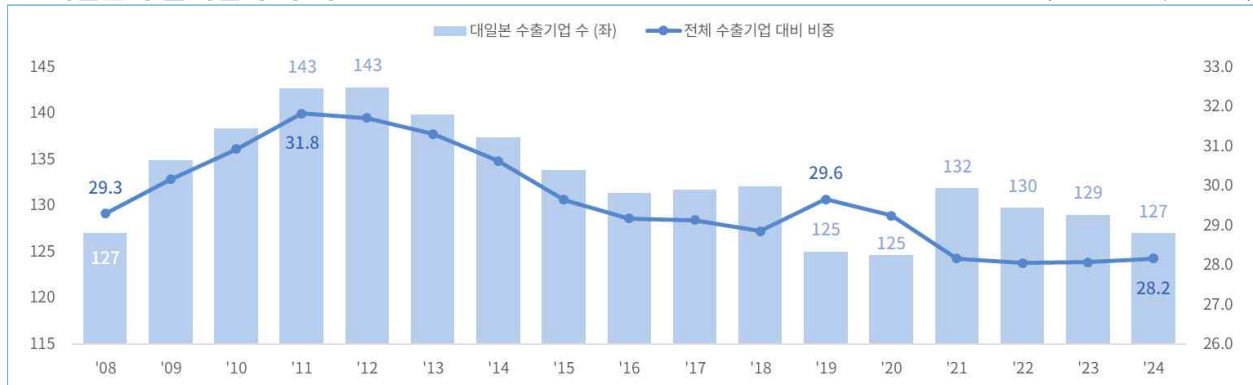
- 한국의 대일본 수출기업 수는 2011년 약 1만 4,300개 사를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다만 대일본 수출기업 1개당 평균 수출금액은 2024년 기준 233만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음

* 기업당 대일본 수출금액(만 달러) : ('18)231 ('19)227 ('20)201 ('21)228 ('22)236 ('23)225 ('24)233

- 전체 수출기업 중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비중도 2011년 31.8%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4년 기준 전체 수출기업의 28.2%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대일본 수출기업 수 추이

(단위 : 백 개, 비중 %)



주 : 기업 수는 무역업고유번호 기준으로 집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일본 수출기업의 29.8%는 대일본 수출비중이 80%를 상회하는 일본 주력 수출기업임

- 2024년 기준 우리 수출기업 중 3,786개사(29.8%)는 對日 수출비중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주로 기계, 화학, 전기·전자 등 IT와 중공업 관련 기업 수가 많았음

▶ 對日 수출비중 구간별 기업 수('24) (단위 : 개, %)

구분	기업 수	기업비중
0초과 ~ 20이하	6,400	50.4
20초과 ~ 50이하	1,512	11.9
50초과 ~ 80이하	1,000	7.9
80초과 ~ 100이하	3,786	29.8

자료: 한국무역협회

▶ 對日 수출기업 업종별 현황('24) (단위 : 개, %)

업종	기업 수	비중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883	7.0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632	5.0
컴퓨터·통신장비 등 제조업	582	4.6
무역업	385	3.0
농업	330	2.6
전자부품 제조업	313	2.5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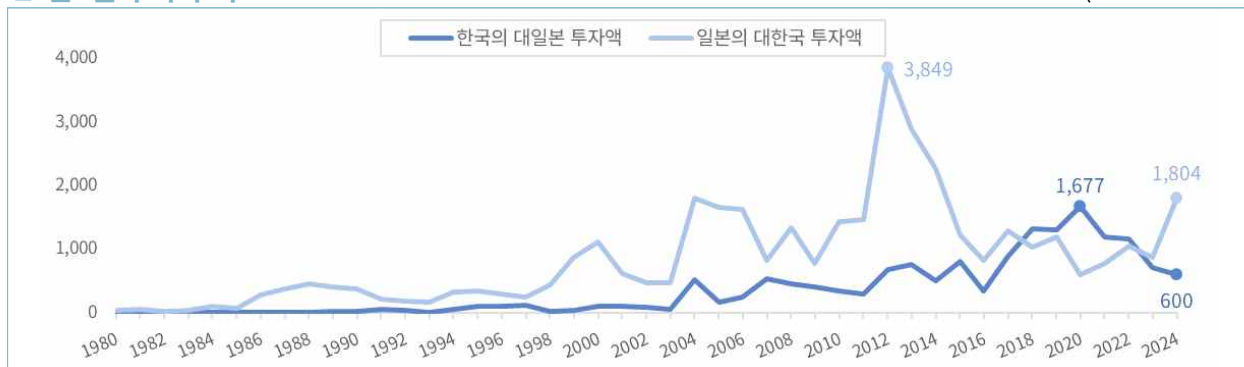
03 투자

■ 한-일 간 투자는 과거 최고점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대일본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코로나19 시기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18~'22) 10억 달러를 상회하며 활발한 투자가 지속
- 일본의 대한국 외국인투자는 2012년 38.5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시기 전후로 일시 둔화되었으나, 지난해 투자액 18.0억 달러(전년 대비 +109.5%)로 크게 반등하였음

▶ 한·일 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도착금액 기준)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중 일본은 12위, 외국인투자 유입 중 일본은 2위를 차지

- 2024년까지의 누계 금액 기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투자한 금액은 157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 중 1.8%를 차지함
 - 법인 수 기준으로 일본(5.2%)은 중국(30.8%), 미국(19.8%), 베트남(9.4%)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신규 법인이 설립된 투자대상국임
- 동기간 한국으로의 외국인투자는 일본(12.6%)이 미국(15.0%)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음

▶ 한국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현황 (단위: 억 달러, %, 개)

순위	국가	투자액 (비중)	법인수 (비중)
1	미국	2,448 (28.1)	18,629 (19.8)
2	중국	955 (11.0)	28,975 (30.8)
3	케이만군도	773 (8.9)	919 (1.0)
4	베트남	391 (4.5)	8,834 (9.4)
5	룩셈부르크	348 (4.0)	386 (0.4)
12	일본	157 (1.8)	4,897 (5.2)
-	세계	8,718 (100.0)	94,038 (100.0)

주: 1980~2024년 누계 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 한국 외국인투자 국가별 현황 (단위: 억 달러, %, 개)

순위	국가	투자액 (비중)	법인수 (비중)
1	미국	467 (15.0)	6,825 (15.0)
2	일본	393 (12.6)	7,595 (16.7)
3	네덜란드	354 (11.3)	898 (2.0)
4	싱가포르	280 (9.0)	1,973 (4.3)
5	몰타	225 (7.2)	110 (0.2)
-	세계	3,123 (100.0)	45,443 (100.0)

주: 1980~2024년 누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이 바라보는 한·일 기업협력

- 한·일 기업협력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한·일 기업 설문 개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명)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조사대상) 2024년 대일본 수출 실적이 있는 한국무역협회 회원 약 2,800개사 (조사기간) 2025.5.21 ~ 2025.5.26 (6일)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응답수) 총 234개 (회수율 약 8.4%) (업종) 제조업 204개사, 서비스업 30개사 (일본 파트너사와의 협력 형태) (복수응답) 	
	협력 형태	응답수 (비중)
	일본 바이어에게 제품 수출	204 (87.2)
	일본 무역상사·총판에 유통·판매 대행 의뢰	44 (18.8)
	일본 공급처로부터 생산용 원자재 수입	43 (18.4)
	일본 현지 마케팅 협력(전시회 공동참여 등)	27 (11.5)
	일본 기업과 연구개발(R&D) 협력	12 (5.1)
	일본 제조기업이 자사제품 현지 생산	7 (3.0)
	현지 투자협력(지분·합작투자 등) 추진	6 (2.6)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명) 「日韓企業協力の現状と発展戦略」 アンケート調査 (조사대상) 2025년 5월 기준 한국에서 영업중인 일본 기업 약 300개사 (조사기간) 2025.5.23 ~ 2025.5.30 (8일)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응답수) 총 49개 (회수율 약 16.3%) (업종) 제조업 44개사, 서비스업 5개사 (일본 파트너사와의 협력 형태) (복수응답) 	
	협력 형태	응답수 (비중)
	한국 바이어에게 제품 수출	22 (44.9)
	한국 무역상사·총판에 유통·판매 대행 의뢰	10 (20.4)
	한국 공급처로부터 생산용 원자재 수입	10 (20.4)
	한국 제조기업을 통한 자사제품 현지 생산	8 (16.3)
	한국 현지 마케팅 협력(전시회 공동참여 등)	7 (14.3)
	한국 기업과 연구개발(R&D) 협력	7 (14.3)
	현지 투자협력(지분·합작투자 등) 추진	6 (12.2)

01 한·일 관계의 기업 교류 영향

■ 현재 한·일 관계가 양국 간 기업 교류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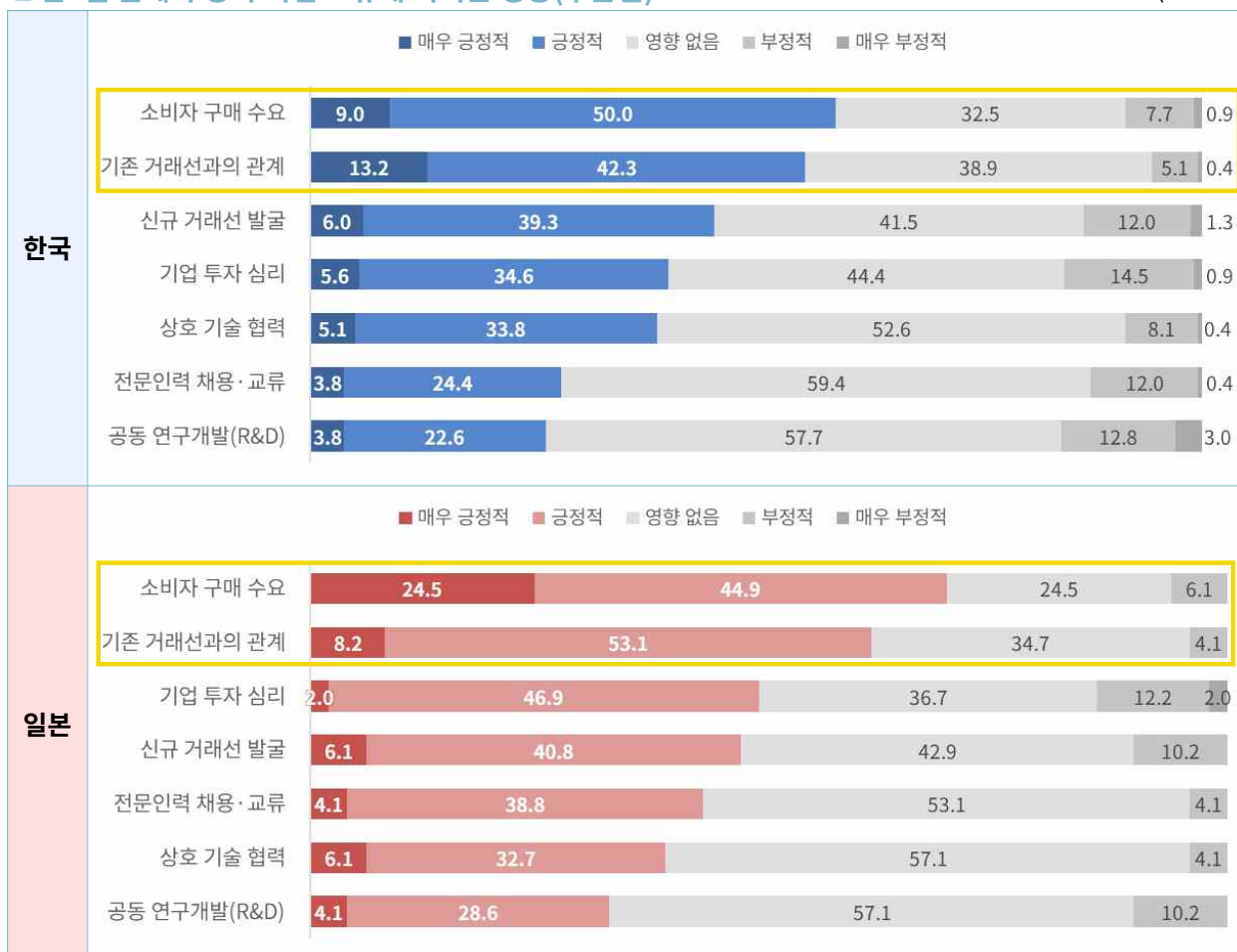
- (한국) 한·일 관계가 ‘소비자 구매 수요’(긍정 응답 59.0%),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55.5%), ‘신규 거래선 발굴’(45.3%)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본 무역상사·총판을 통해 유통·판매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72.7%가 신규 거래선 발굴 시 한·일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 (일본) 한·일 관계가 ‘소비자 구매 수요’(긍정 응답 69.4%),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61.3%), ‘기업 투자 심리’(48.9%)에 특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

▶ 한·일 관계가 양국 기업 교류에 미치는 영향(부문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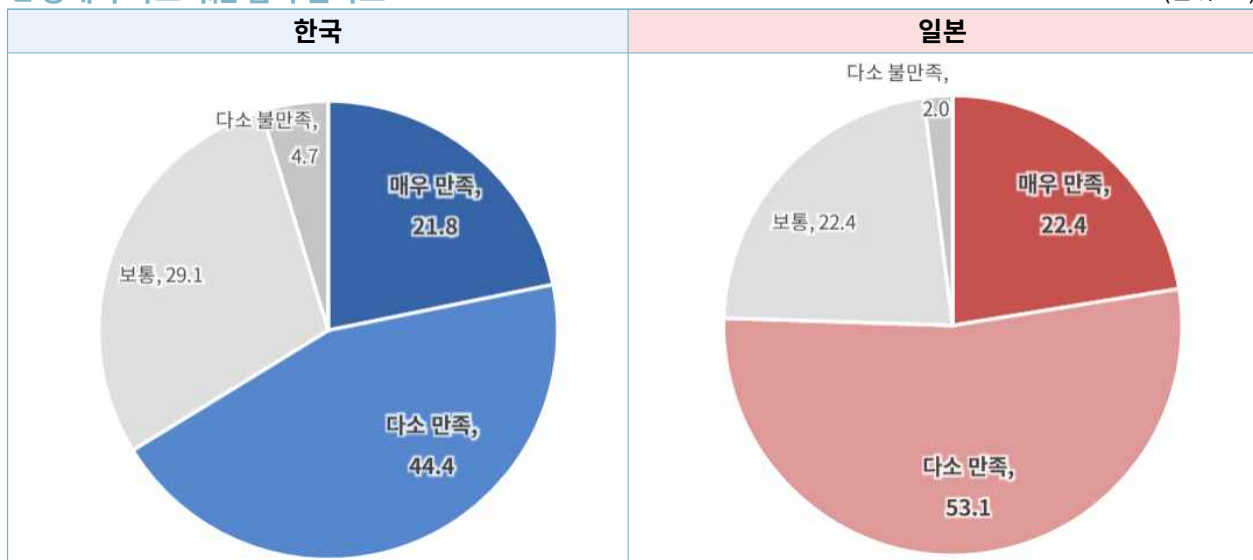
02 파트너사 협력 만족도 및 향후 협력 의향

■ 양국 기업 모두 상대국 파트너사와의 협력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전체 응답 기업의 66.2%가 일본 파트너사와의 교류·협력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1.8%에 달했음
 - 특히 일본 공급처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76.7%가 협력에 만족한다고 답함
- (일본) 응답 기업의 75.5%가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력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2.4%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상대국 파트너사 협력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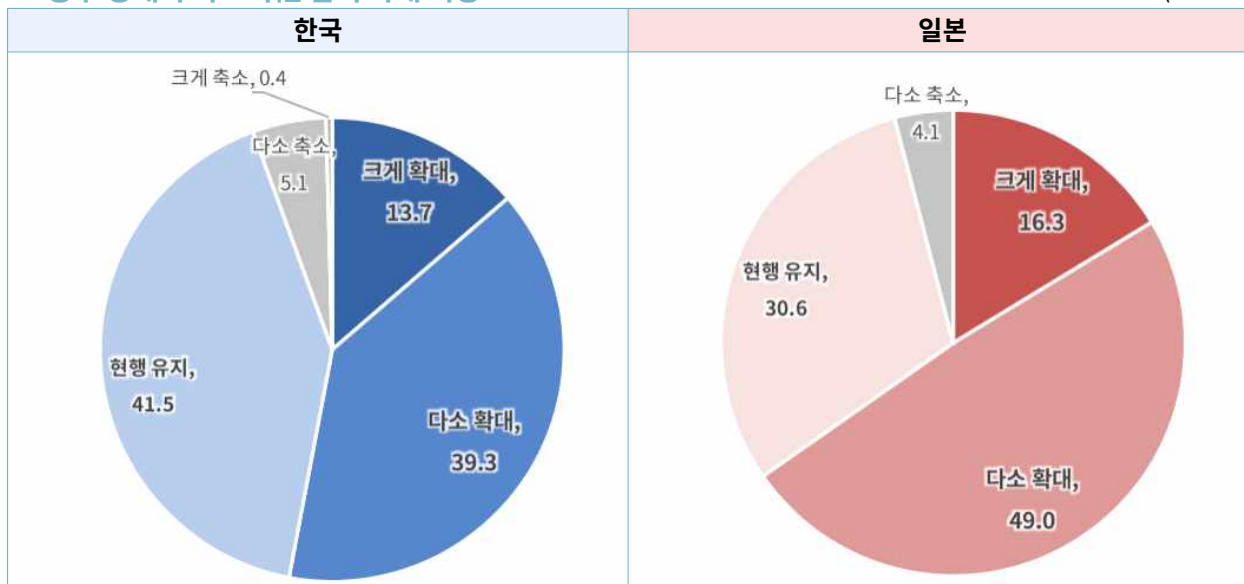
주: 한국은 ‘일본 파트너사 협력 만족도’, 일본은 ‘한국 파트너사 협력 만족도’에 대해 응답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일 기업 모두 향후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할 의향이 큰 것으로 조사됨

- (한국) 응답 기업의 94.5%가 향후 일본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 향후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유지·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95.9%에 달함

▶ 향후 상대국 파트너사 협력 확대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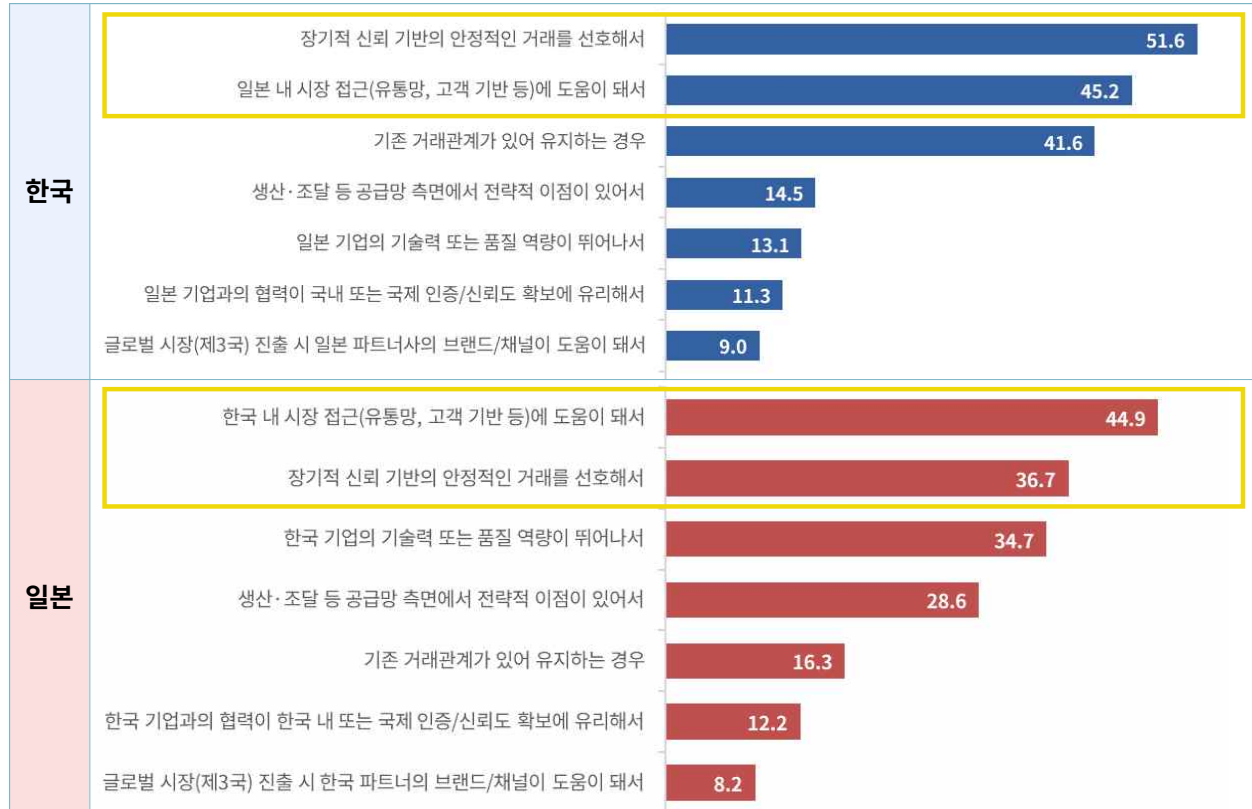
주: 한국은 '일본 파트너사 협력 확대 의향', 일본은 '한국 파트너사 협력 확대 의향'에 대해 응답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과 일본 기업 모두 신뢰 기반의 장기적 거래관계를 선호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상대국 시장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어 파트너사와의 교류 확대를 희망

- (한국) 우리 기업이 일본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를 고려하는 주요 이유는 안정적인 거래 확보와 일본 시장 진출로 조사됨
 - 응답 기업은 장기적 신뢰 기반의 안정적인 거래(51.6%)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41.6%)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 45.2%의 기업은 일본 내 시장 접근에 도움이 되어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음
- (일본) 일본 기업이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 및 기술·품질에 대한 선호임
 - 한국 파트너사와 협력을 유지·확대하고 싶다고 응답한 기업 중 44.9%가 '한국 내 시장 접근(유통망, 고객 기반 등)'을 이유로 들었음
 - '장기적인 신뢰 기반의 안정적인 거래를 선호'(36.7%)하고,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 역량이 뛰어나서'(34.7%)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30% 이상을 차지

▶ 상대국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 고려 이유

(단위: %)



주: 한국은 '일본 파트너사 협력 확대 고려 이유', 일본은 '한국 파트너사 협력 확대 고려 이유'에 대해 응답
 자료: 한국무역협회

03 한·일 기업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정책

■ 양국 기업은 향후 한·일 협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응답함

- (한국) '안정적인 한·일 소부장 공급망 협력'에 대한 집중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7.4%로 두 번째로 높았음
- (일본) 소부장 공급망 협력(59.2%)은 일본 기업이 가장 바라는 지원 정책 1위로, 여타 항목 대비 2배 이상의 응답 비율을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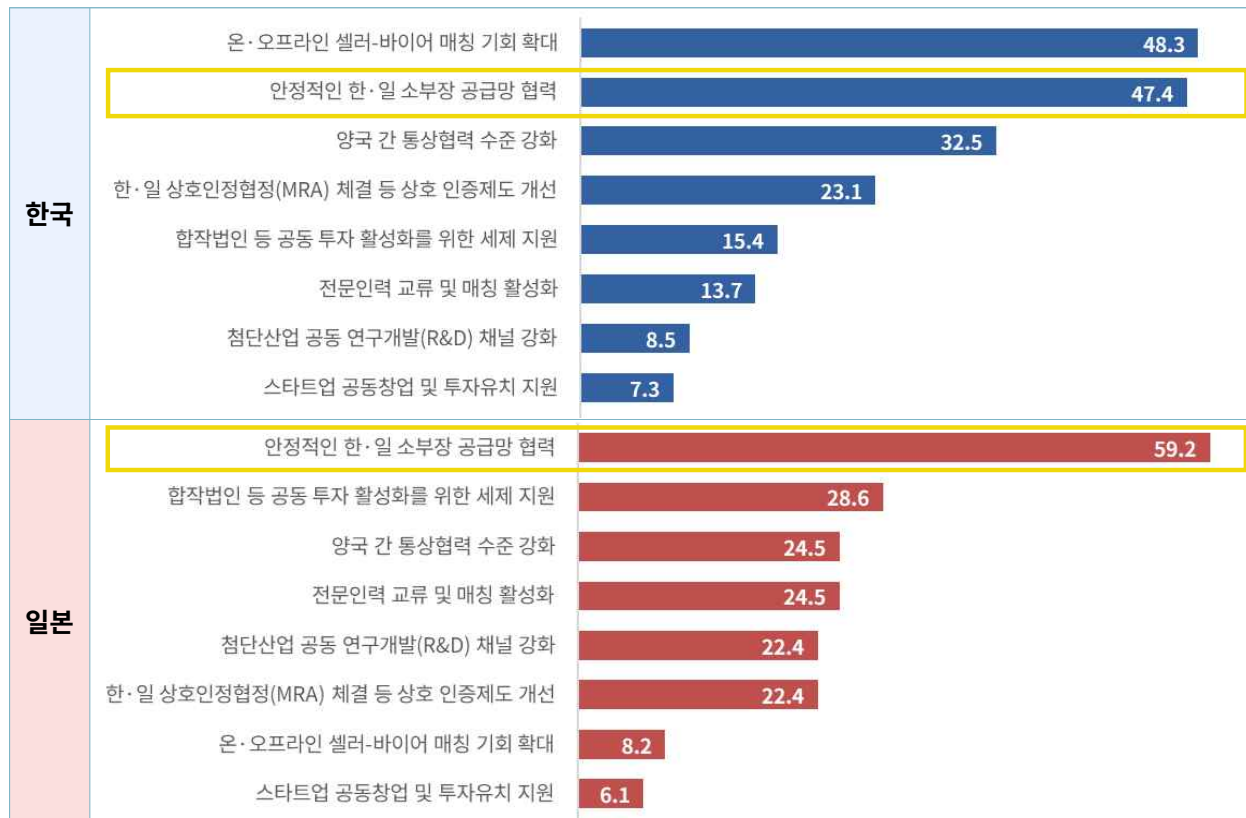
■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의 형태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음

- (한국) 우리 기업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지원책은 '온·오프라인 셀러-바이어 매칭 기회 확대'(48.3%)로, 기업 간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 지원을 희망하였음

- (일본) 일본 기업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28.6%), 통상협력 강화(24.5%), 전문인력 교류 및 매칭 활성화(24.5%)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주로 요청하였음

한·일 기업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IV

한·일 기업협력 유망 분야와 발전 전략

■ 본 보고서는 기업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핵심광물 및 에너지 4개를 한·일 기업협력 유망 분야로 선정하고 분야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난 60년 동안 한·일 교역 구조가 중간재 중심으로 재편되어 온 만큼, 미래 첨단산업에서도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일 기업협력 발전 전략

구분	인터뷰 기업	기업 제언 및 협력 방안
모빌리티	A社 (日 ICT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술 컨소시엄
차세대반도체	B社 (韓 반도체 기업 일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R&D 협력 플랫폼 운영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 제고 ■ 중소기업 중심 설계-제조 연계 공급망 구축
바이오	Shonan iPark (日 바이오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임상-상용화 연계 시스템 구축 ■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양국 간 시장 진출 활성화
핵심광물 및 에너지	C社 (日 에너지 개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에너지 통합 솔루션 구축 ■ 제3국 공동 생산을 통한 안정적 자원 공급망 확보

자료: 저자 작성

01 모빌리티

■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단순 교통수단 제공을 넘어 타 산업과의 융합 잠재력이 큰 유망 산업

- 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 결제, 경로 안내 등 이동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의미
- MaaS는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교외 교통 공백 해소, 고령 인구의 의료 서비스 연계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 가능²⁾

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21)

■ 한·일 양국 MaaS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업협력 사례는 아직 제한적인 실정

- 한국은 디지털화된 전국 연계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교통서비스 이용 데이터 활용 경험이 풍부하여 MaaS 도입에 유리한 환경 보유
 - 지하철, 버스, 택시, 카셰어링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단일화된 디지털 네트워크로 구축해 왔으며,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시행해 환승·결제 시스템이 우수함
 - 다수의 민간 플랫폼 기업*이 통합 교통수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티머니 등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ICT 기술을 MaaS와 적극 접목하고 있어 교통 외 부가 서비스로의 확장성이 우수함
- 일본의 MaaS 시장은 완성차 제조사, 민영 교통사업체 등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산업 간 확장의 잠재력이 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장점임
 - 일본의 MaaS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6,462억 엔(약 6조 2천억 원) 수준으로, 2025년중 1조 엔(약 9조 6천억 원) 돌파 전망³⁾
 - 일본은 아직 대중교통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아, 향후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시장 확대 잠재력이 큼
 - * 일본의 대중교통은 한국과 달리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사업자별로 서비스 데이터가 별도 구축 및 관리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9년 ‘일본판 MaaS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도요타, 소프트뱅크 등 대기업 및 JR동일본, 오다큐전철 등 교통사업자와 함께 전국적으로 실증사업을 시행 중⁴⁾
 - 일본 정부는 다수 부처가 별도 관리하는 교통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디지털화를 위해 2023년 디지털청을 설립
- 양국 시장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MaaS 산업 내 기술 교류 등 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

3) 한국관광공사(2023)

4) 일본 국토교통성(2024)

- 한국 카카오모빌리티와 일본 GO(舊 재팬택시)는 2018년 9월 자본제휴를 맺고, 2019년부터 카카오T를 이용해 일본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음
- 2024년 10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첨단기술 협력의 일환으로 교통·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된 바는 없음⁵⁾

■ **한·일 기업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MaaS 기술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연구개발, 실증사업, 표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국의 교통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일본의 대형 교통사업 운영 경험을 접목하여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차세대 MaaS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 연구 협력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교통 데이터, 결제 시스템 등을 국제표준으로 연동하여 양국 교통 핵심 인프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
 - 한·일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일 공동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연구개발 펀드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협력 범위 및 참여 주체를 확대
- 일본의 지역밀착형 MaaS 실증사업 경험과 한국의 민간 플랫폼 혁신을 결합하여 관광, 의료, 쇼핑 등 보다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융합된 MaaS 모델을 구축
 - 한·일 양국의 공통적인 사회 이슈인 고령화와 지방 소멸 상황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교통 시스템을 설계

02 차세대반도체

■ **차세대반도체란 기존의 반도체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되거나, 새로운 구조·소재·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반도체로 AI 산업을 비롯한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 차세대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센터, 의료기기, 통신 등 미래 산업 전반의 고성능 시스템 구현에 널리 활용되어 향후 빠른 성장세가 기대

5) 외교부(2024.10.18.)

■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제조, 일본은 소재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국 모두 시스템반도체 역량 제고가 시급한 상황**

- 한국은 세계 최초로 3nm 파운드리 양산에 성공하고⁶⁾,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61.0%⁷⁾에 달하는 메모리반도체 제조 강국

- 일본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소재 시장의 50%,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의 30%를 차지⁸⁾

-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대만의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반도체산업 경쟁우위평가 점수⁹⁾ ('21, 산업부): (한국)63, (일본)78, (대만)85, (미국)99

- 한국과 일본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이 부족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에 최적화된 설계-제조-패키징 역량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음

■ **한·일 협력 R&D 플랫폼을 조성하여 차세대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중심 설계-제조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만 TSRI 사례¹⁰⁾를 벤치마킹하여 한·일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방형 R&D 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고 차세대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 TSRI는 대만 학계의 인재를 모집하고 TSMC(기업)의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진행하며, 이후 이를 기업 및 학계와 공유하는 구조

-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운영 중인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한·일 협력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일본은 2027년까지 자체 차세대 반도체 파운드리 설비에서 2nm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한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미국 팹리스에 파견하는 OJT¹¹⁾,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LSTC)¹²⁾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6) 삼성전자(2022)

7) Omdia(2024)

8) BCG(2024)

9) 삼일PwC경영연구원(2024.7.)

10) 민수진 외(2023)

11) 日経XTECH(2024.11.7.)

12) KOTRA(2024.5.21.)

-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도체 R&D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기술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다품종 소량생산이 주를 이루는 차세대 반도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양국 팹리스·제조 중소기업과 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 간 교류를 통해 설계-제조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 DSP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가 특정 회사의 파운드리(생산 설비)에 적합한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계와 양산 최적화를 지원하는 기업¹³⁾
 - 설계-제조 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단순 팹리스-제조기업 간 교류 뿐만 아니라 DSP까지 포괄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
- 기체결된 한·일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 합의*를 지속·확대하여 양국 기업 간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정례화하고 차세대반도체 생태계 내 중소기업의 입지 확대에도 힘써야 함
 - * 2024년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와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한국의 ICT 기술과 일본의 소부장 기술을 교류하고 양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03 바이오

- **한국과 일본의 바이오산업은 최근 세포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이 이어지고 있음**
 - 한국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19~2023년 연평균 11% 성장¹⁴⁾
 - 일본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60조 엔(약 536조 원) 이상이며, 오는 2030년 100조 엔 수준까지 성장할 전망¹⁵⁾
- **양국 바이오 업계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기업협력이 유력한 분야임**
 - 한국은 우수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많고, 세포치료·백신 등 상용화 기술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기업 규제와 자금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 존재

13) 전자신문(2024.10.15.)

14) 한국바이오협회(2024)

15) 머니투데이(2024.10.9.)

-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일부 바이오 기술에 대한 임상 규제가 엄격하여 기술 사업화 시 애로 존재
 - * 한국의 첨단재생의료 연구는 치료(일대일 임상연구)와 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의약품은 상용화를 위해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나 현재까지 임상시험 승인이 전무한 상황임
- 한국의 바이오 벤처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바이오 산업 투자자금 유입은 감소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일본은 유전체 편집·단백질 구조 분석 등 기초연구 기반이 우수하고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의 규제가 허용적이나 산학 연계가 약하고 스타트업이 많지 않다는 한계점 존재
- 국가 차원에서도 한·일 바이오기업의 협력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
- 2024년 5월 한국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2회 한·일 바이오벤처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공동 연구, 임상데이터 공유, 상호 시장 진출 전략 등이 논의됨

■ 한·일 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실제 사업화에 이르는 단계에서 상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일본의 우수한 기초연구 역량과 한국의 응용기술 및 상업화 역량을 결합하여, 연구개발-임상-상용화 전 과정을 공유하는 한·일 공동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활성화
 - 한국의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일본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고, 일본의 연구 성과가 한국의 상업화 체계와 연계되어 신속한 제품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
- 신제품 개발의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 분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대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이 라이선스 아웃* 및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 기반 기업 매칭을 추진
 - * 라이선스 아웃: 기업이 보유한 기술, 물질, 제품,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타사에 판매하는 것¹⁶⁾
- 양국 간 상호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임상 데이터,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등 주기별 데이터를 공유하여 신약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현행 규제 상 일본·미국에서 승인을 받아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바이오 제품일지라도 한국 내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해 관련 기업의 애로가 큰 상황

04 핵심광물 및 에너지

■ 한국과 일본 양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 및 에너지의 해외 조달 비중이 높아 공급망 리스크 구조가 유사함

- 2022년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각각 94%¹⁷⁾, 97%¹⁸⁾에 달했음
- 한·일 모두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단일 국가 리스크가 기간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양국은 이미 기업 차원에서 해외 자원사업 공동 투자·운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기관 및 정부 차원의 협력 논의도 확대되는 추세임

- 한·일 기업은 칠레,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 주요 광물과 수소, 암모니아, LNG 등 에너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음

📌 한·일 기업 광물·에너지 공동 개발 사례

구분	지역	참여 기업
구리	칠레	(韓)LS MnM-(日)마루베니
니켈	마다가스카르	(韓)포스코인터내셔널-(日)스미토모상사
니오븀	브라질	(韓)포스코-(日)NSC·JFE
철	호주	(韓)포스코홀딩스-(日)마루베니
LNG	인도네시아	(韓)한국가스공사-(日)미쓰비시상사
수소	칠레 등	(韓)롯데케미칼-(日)이토추상사
암모니아	호주 등	(韓)롯데케미칼-(日)스미토모상사

자료: KIEP, 언론보도 종합

-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2023년 4월 업무협약을 맺어 LNG 공동구매, 선박공유, 수급위기 시 상호 LNG 스왑(swap) 대응 체계 등을 마련한 바 있음
- 2025년 2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광물자원대화를 개최하여 핵심광물 비축 협력, 공동 생산, 정책 공조 강화 등 공급망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¹⁹⁾

17) 에너지경제연구원(2024.6)

18) EIA(2023)

■ 양국의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일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3국 공동 진출 확대와 대체에너지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

- 일본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운영 노하우와 한국의 에너지 활용 기술을 접목하여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에너지 통합 솔루션을 개발
- 한·일 광물자원대화, MSP 등 정부 차원의 정례 협의체를 민간 협력 네트워크로 확장하여 자원 종류별, 진출지역별 정보 공유와 기업 매칭을 활성화
 - 기업 간 매칭을 통해 호주·중남미·아프리카 지역에서 리튬·코발트·희토류 공동 탐사 및 투자를 진행하여 LNG 등 에너지 및 핵심광물 수입원 다변화 도모
 - 공동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탐사·개발·정제·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가치사슬 정보 공유 체계 마련
 -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외에 수소·암모니아 등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과정에 공동 진출하여 대체에너지 생산-저장-운송-활용 공급망 선제적 구축

V

결론 및 시사점

■ 한·일 무역은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양국 기업 간 전략적 제휴와 공동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됨

- 과거 한국은 일본에 원자재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입하였으나, 현재는 IT 및 중화학공업 제품을 쌍방으로 교역하는 구조로 변화
- 한·일 양국은 현재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동 대응을 위한 미래 산업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기업은 상호 교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앞으로도 기업 협력을 확대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기업의 66.2%, 일본 기업의 75.5%가 상대국 파트너사와의 교류·협력에 만족한다고 응답
- 한국 응답 기업의 94.5%, 일본 응답 기업의 95.9%가 향후 상대국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 확대 또는 유지 의향을 표현

■ 향후 ▲모빌리티,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핵심광물 및 에너지 산업에서 기술협력과 생태계 연계 공급망 구축을 통해 한·일 기업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일 기업협력 발전 전략

구분	협력 방안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술 컨소시엄
차세대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R&D 협력 플랫폼 운영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 제고 ■ 중소기업 중심 설계-제조 연계 공급망 구축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임상-상용화 연계 시스템 구축 ■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양국 간 시장 진출 활성화
핵심광물 및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에너지 통합 솔루션 구축 ■ 제3국 공동 생산을 통한 안정적 자원 공급망 확보

자료: 저자 작성

■ **한·일 기업이 단순 제품 거래를 넘어 기술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층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뢰 확보, 공급망 강화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함**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선호하는 양국 기업이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환경 조성 지원이 필요
 - 상대국 기업과의 신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거래 경력, 정부 사업 수행 경험 등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및 기업 매칭 기회 지원
 - 기업협력의 지속성을 위해 양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경제외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개별 협력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가 실제 필요로 하는 공급망 강화 지원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함
 - (모빌리티) 양국 교통 시스템 특징 및 장점 공유를 위한 기업 간 교류 기회 마련
 - (바이오) 한국 내 글로벌혁신특구 활성화를 통해 해외인증의 국내 승인 가속화 및 의료기기 등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 상호인정 제도 도입 검토
 - (차세대반도체) 한·일 공동 연구비 장기 지원 및 설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핵심광물·에너지) 한·일 양국 정부와 자원 보유국 정부 간 대화 채널 정례화로 양국 기업의 제3국 진출 여건 조성

REFERENCES

데이터베이스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https://www.eia.gov/international/data/world>)

UN Comtrade (<https://comtradeplus.un.org/>)

언론자료

롯데케미칼(2022.9.30.) “롯데케미칼, 스미토모 상사와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 맞손.”

머니투데이(2024.10.9.) “‘2030년 세계 최첨단 바이오 사회 실현’ 韓과 격차벌리는 '일본 바이오'.”

산업통상자원부(2025.2.27.)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첫걸음.”

삼성전자(2022.6.30.) “삼성전자,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외교부(2024.10.18.) “Joint Statement on the Republic of Korea-U.S.-Japan Trilateral Vice Foreign Ministreal Meeting.”

전자신문(2024.10.15.) “‘2나노 수주’ 가온칩스, 인력 대거 총원... 국내 2위 규모 도약.”

코오롱제약(2023.5.25.) “신약 기술 수출, K바이오 부상의 출발점.”

한국가스공사(2023.4.10.) “가스공사, 日 JERA와 LNG 분야 협력 확대.”

한국관광공사(2023.7.30.) “확대되는 일본 내 MaaS 시장, 2025년에는 1조엔 초월 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21.10.18.) “일본의 MaaS 실증 사업 동향과 시사점.”

日経XTECH(2024.11.07.) “AI半導体設計企業に200人留学、経産省が新プロジェクト.”

논문 및 보고서

김규판(2024).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확보전략과 한·일 협력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4-09.

김은희(2024). “바이오산업 매출 및 국내시장 현황과 전망.” 한국바이오협회.

김재열(2019). “일본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 251. pp.75-83.

김정곤 외(2014).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11.

민수진 외(2023). “첨단반도체 R&D 협력 사례 분석: IMEC, TSRI, NSTC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8권 제4호.

삼일PwC경영연구원(2024.7.) “글로벌 패권전쟁의 중심에 선 반도체 산업.”

BCG(2024.10.) “Japanese Semiconductor Renaissance: Accelerating the ‘New Direction’ with Technology Leadership.”

Energy Institute(2024).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Grubel, H. and Lloyd, P.(1975). “Intra-Industry Trade: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KOTRA 도쿄무역관(2024.5.21.) “日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및 현황.”

国土交通省(2024.3.18.) “日本版MaaSの推進について.”

인터뷰 및 자문

湘南ヘルスイノベーションパーク(Shonan iPark) (<https://www.shonan-ipark.com/en/>)

日本国際問題研究所(JIIA) (<https://www.jiia.or.jp/en/>)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도쿄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105M0_T.do)